

## 설 절제의 범위에 따라 적합한 유리 피판을 이용한 설 결손의 기능적 재건

김정철·안희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성형외과학교실

목 적 : 유리 피판술을 이용한 설 결손의 재건시 결손의 범위 및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재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되는 유리 피판 공여부의 적합한 선택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저자들이 시행한 재건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198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악성 설암을 가진 15명의 환자에서 설 절제술 후 미세수술에 의한 유리피판술로 결손을 재건하였다. 부분설절제술은 8예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혀의 운동성에 가능한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얇고 부드러운 공장 유리피판을 일차적으로 선택하였다. 반설절제술은 5예에서 시행하였고, 이의 결손은 유동성의 유지 및 설첨부에서 설기저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터워지는 혀의 외형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외측 상박 유리피판을 이용함으로써 상완골 외과 부위의 매우 얇은 피판으로 설첨부를 재건하여 유동성 및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주고, 피하조직이 비교적 많은 피판의 근위부로 혀의 기저부를 재건하여 유동성과 정상에 가까운 혀의 모양을 얻을 수 있었다. 2예의 전설절제술의 경우에는 혀의 운동성이 완전히 소실되므로 이를 재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 재건된 피판 자체의 운동으로 연하 및 구음과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두터운 피판을 이용하여 설-구개 폐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데 재건의 목표를 두어 복직근 유리피판을 일차적으로 선택하였다.

결 과 : 모든 환자에서 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은 성공적이었으며, 피판의 파사 및 누공 형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예는 없었다. 설 결손의 범위와 위치를 감안하여 적합한 유리피판술을 이용함으로써 음식물의 저작, 연하, 발음 등에 가능한 한 최적의 복원을 시행하였다.

결 론 : 저자들은 지난 10년간 15예의 유리피판술로 설 결손의 재건을 시행하였다. 보다 기능적인 재건을 하기 위하여 결손의 범위 및 위치를 고려하여 유리피판의 공여부를 선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절한 재건을 통하여 이들 환자들의 재활을 용이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